

2024년 1호

Global Trend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국제 산업 안전보건 동향

국제 산업안전보건 동향은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단에서 발간하는
분기별 국제 산업안전보건 동향
소식지입니다



CONTENTS

1

국가별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통계

[국제]	국가별 고 시인성 안전복 착용 규정 및 표준 현황	4
[국제]	선진국 산재통계 -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십만인율(영,미,독,일)	8
[싱가포르]	안전보건 주인의식 진단 · 개선을 위한 온라인 도구 iOwnWSH 개발	12

2

정신건강 예방에 관한 분석 및 조사

[ILO]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	16
[유럽]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	18
[일본]	수면 부족에 따른 피로누적과 우울 · 불안 증상 악화간의 관계	21

3

국제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

[미국]	포틀랜드 항만, 설계를 통한 산재예방 우수기관 선정	25
[미국]	Amazon - MSD 감축노력 및 성과	28
[호주]	광업부문 재해예방 접근 사례	31

4

2024년 국외 산업안전보건 행사

34

[안내문] 2024 산업안전 대진단

1

국가별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통계

국제

국가별

고 시인성 안전복 착용 규정 및 표준 현황

국제

선진국 산재통계

-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십만인율(영, 미, 독, 일)

싱가포르

안전보건 주인의식 진단 · 개선을 위한

온라인 도구 iOwnWSH 개발

[국제]

1

국가별 고시인성 안전복* 착용 규정 및 표준 현황

(*High Visibility Safety Apparel, HVSA)

배경

- 배달종사자와 신호수에 대한 사고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법적·기술적 요건이 명확하지 않음
 - (배달종사자) '22년 전체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 18,295건(사망자 수: 484명)
 - ※ 이륜차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로 16~22시에 전체이륜차 사고의 43.5%가 집중, 주말 저녁과 평일 저녁에 배달앱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도로교통공단, '23.6.27.)
 - (신호수) '20~'23년 건설사고 중 사고사망자 : 총 32명
 - ※ 산업재해통계 기준, '20년 10명, '21년 11명, '22년 11명
- 해외 각 국가에서는 배달종사자, 신호수 등에 대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복을 지급 및 착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2022년 7월 1일자로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는 음식 배달종사자에게 고시인성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발효됨
 - * Work Health and Safety Amendment (Food Delivery Riders) Regulation 2022
 - 고시인성 개인보호구란, 다음의 호주/뉴질랜드 국가 표준에 적합한 재귀반사형(retroreflective) 의복, 음식 및 음료 운반용 가방 또는 용기를 의미
- 호주/뉴질랜드 국가 표준(AS/NZS 4602.1)
 - 사용시간대(주간, 야간, 주·야간)에 따라 각각 D, N, D/N 등급으로 분류
 - 주간용 D 등급 제품은 형광 소재가 사용되며, 야간용 N 등급 제품은 재귀반사(역반사) 소재(패턴)가 사용되어야 함

D 등급



N 등급



D/N 등급



※ 이미지출처 : <https://www.trubrand.com.au/truworkwear-standards-ASNZS4602-1-2011>

[국제] 국가별 고시인성 안전복 착용 규정 및 표준 현황



• 신호수가 착용하는 복장은 건설 안전보건에 관한 연방규정(CFR)*에 따라 도로 및 고속도로 표준 교통통제장치 매뉴얼(MUTCD)**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Part 1926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for Construction, § 1926.201 Signaling

**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for Streets and Highways

- Section 6C.05 High-Visibility Safety Apparel

- 주/야간 작업 시 모든 근로자는 ANSI/ISEA 107-2015의 성능 등급 2 또는 3에 적합한 고시인성 안전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 작업의 경우 성능 등급 3에 적합한 안전복 착용을 권고

• 미국 국가 표준(ANSI/ISEA 107)

- 작업 환경별로 분류되는 고시인성 안전복 성능등급은 다음과 같음

	O 타입 (오프로드 및 비도로)	R 타입 (도로 및 임시교통통제구역)	P 타입 (응급, 사고대응 및 법률 집행 인력)	보조 복장 (바지, 작업복, 반바지, 장화 및 각반)
성능 등급	• 1 등급	• 2 등급 및 3 등급 ※ 타입 P 대비 더 넓은 배경소재 면적을 요구	• 2 등급 및 3 등급 ※ 색상 식별기준 : 빨간색(소방), 녹색(응급의료), 파란색(법 집행)	• E 등급 ※ E 등급 복장을 2 등급 또는 3등급 안전복과 함께 착용 시, 전체 성능은 3등급으로 간주

- 성능등급이 높을수록 가시성(감지 거리)이 높으나, 민소매 또는 조끼 형태만으로는 성능등급 3으로 간주되지 않음

- 모든 성능등급 제품에 재귀반사 소재가 포함되나, 최소 면적에 차이를 둠

- 등급별 고시인성 안전복 디자인 예시



※ 이미지출처: <https://safetysignindonesia.id/mengenal-tipe-dan-kelas-high-visibility-safety-apparel-hvsa-sesuai-standar-ansi-isea-107-2020/>

[국제] 국가별 고시인성 안전복 착용 규정 및 표준 현황



- 직장내 개인보호구 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고시인성 의복도 개인보호구로 간주됨**

* Th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t Work Regulations 1992 (2022년 일부 개정)

** Us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to control risks at work
(<https://www.hse.gov.uk/ppe/using-the-right-type-of-ppe.htm>)

- 영국에서 유통되는 개인보호구(고시인성 의복을 포함)는 관련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적합성선언 및 마킹(유럽 CE마크 또는 영국 UKCA마크)을 하여야 함

* 고시인성 의복에 관한 표준: EN ISO 20471:2013

- 영국 국가 표준(EN ISO 20471)

- 국제 표준 ISO 20471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발행한 유럽 표준
- 시인성 재료의 최소 요구 면적에 따라 1 ~ 3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사용 조건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단위 : m²)

재료	1등급	2등급	3등급
바탕 재료	0.14	0.50	0.80
재귀반사 재료	0.10	0.13	0.20
복합 기능성 재료	0.20	n.a.	n.a.
디자인 예시			

※ 이미지출처 : DGUV Information 212-016, Warnkleidung (2021)



-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가 법령에서는 고시인성 안전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업노동재해방지협회(JCOSHA)의 건설업노동재해방지규정* 및 그 해설서에서 유도자의 식별 수단으로 반사 조끼(反射チョッキ)를 언급하고 있음

* 建設業労働災害防止規程, 건설업 사업주 등 협회 회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규정

- 차량이 혼재하여 작업하는 등의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1) 울타리 또는 로프로 둘러싸고, 운전자 외 출입금지 표시
 - 2) 유도자를 지명하여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도록 하고, 유도자에게 완장을 사용하게 하는 등 관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국제] 국가별 고 시인성 안전복 착용 규정 및 표준 현황

- 「완장을 사용하게 하는 등」에는 배지, 헬멧 밴드, 유도봉, 반사 조끼의 장착 등이 해당됨



※ 이미지출처: 建設業労働災害防止規程の解説(건설업 노동재해방지규정 해설서), 일본 3M

- 일본 국가 표준(JIS T 8127)
 - 국제 표준 ISO 20471을 기초로 일부 내용을 변경한 일본 표준
 - 협회 규정에서는 반사 조끼에 대한 표준 또는 세부요건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 시인성 안전복에 대한 일본 국가표준(JIS)이 마련되어 있음

시사점

- 미국, 호주 등의 사례와 같이 건설장비 주변에서 작업하는 신호수, 야간 배달이 잦은 배달근로자가 고시인성 안전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주변 차량 또는 장비와의 충돌, 깔림 등 사고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고 시인성 안전복은 말 그대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 환경에 따라 기존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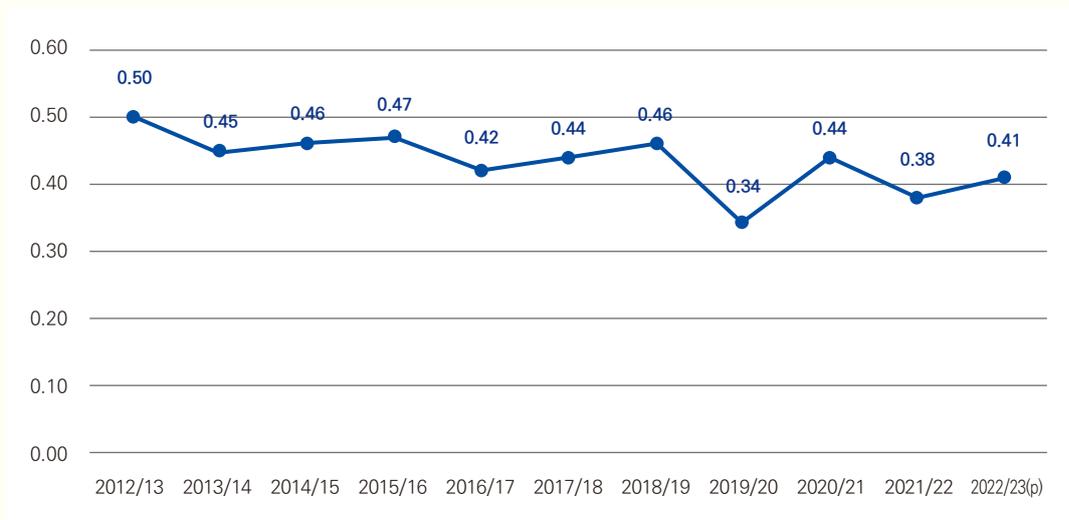
2

선진국 산재통계: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십만인율

(영국, 미국, 독일, 일본)



• 영국(GB*)의 사고사망십만인율(2012/13년 ~ 2022/23년(잠정)**)



* United Kingdom(UK) 중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Great Britain(GB)의 재해통계만 집계

** 영국 회계연도 기준(4월 5일 종료, 4월 6일 새 회계연도 시작)

- (비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제외, 2019/20년 ~ 2021/22년의 수치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영향을 받음

- (출처) 영국보건안전청(HSE), RIDHIST: Work-related injuries reported under RIDDOR* from 1974

*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부상, 질병 및 위험상황 보고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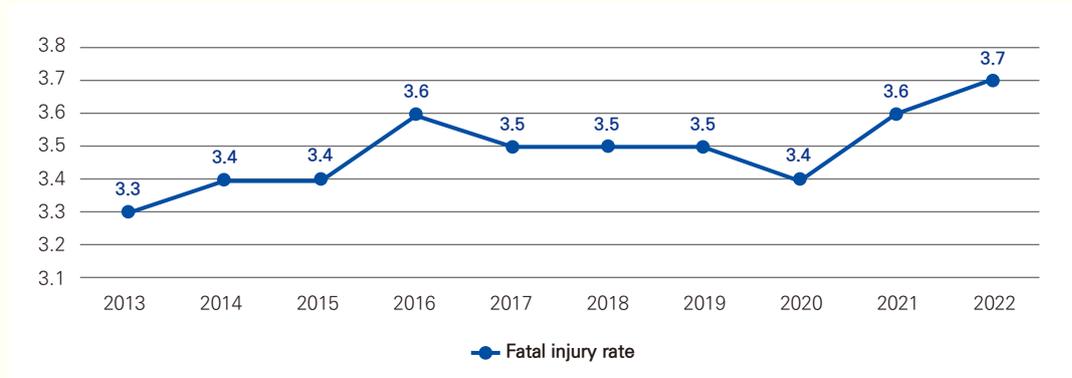
※ 웹사이트: <https://www.hse.gov.uk/statistics/history/index.htm>

- Historical picture: trends in work-related ill health and workplace injury in Great Britain
 - ↳ Workplace injuries for employer-reported fatal and non-fatal injuries in Great Britain
 - ↳ RIDHIST(.xlsx)

[국제] 선진국 산재통계: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십만인율



• 전일제(Full-time) 근로자의 사고사망십만인율(2013년 ~ 2022년)



- (출처) 미국 노동통계부(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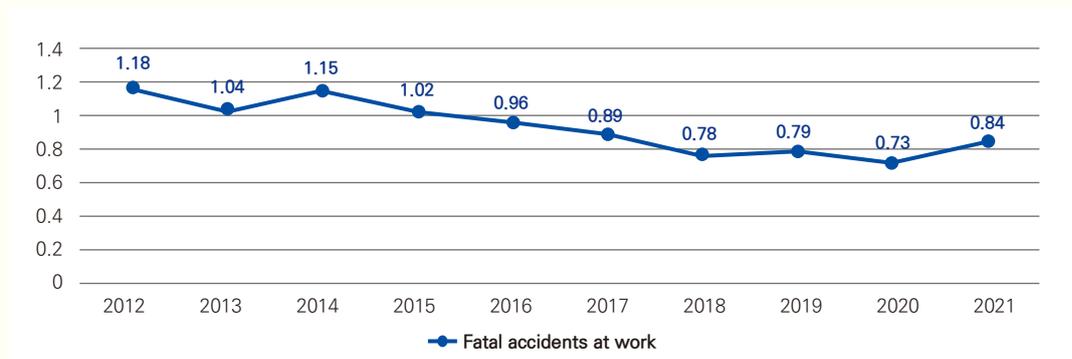
※ 웹사이트: <https://www.bls.gov/opub/ted/2023/fatal-work-injuries-up-in-2022.htm>

• Publication

- ↳ TED: The Economics Daily
- ↳ Fatal work injuries up in 2022 (December 29, 2023)



• 사고사망십만인율(2012년 ~ 2021년*)



* 유로스탯(Eurostat)의 사고사망십만인율 통계는 2012~2021년까지 제공(*23.10월 업데이트)

- (출처) 유로스탯(Eurostat)

※ 웹사이트: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hsw_n2_02/default/table?lang=en&category=hlth.hsw.hsw_acc_work.hsw_n2

• Database

- ↳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 Health → Health and safety at work
- ↳ Accidents at work (ESAW, 2008 onwards) → Details by NACE Rev. 2 activity (2008 onwards)
- ↳ Fatal Accidents at work by NACE Rev. 2 activity

[국제] 선진국 산재통계: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십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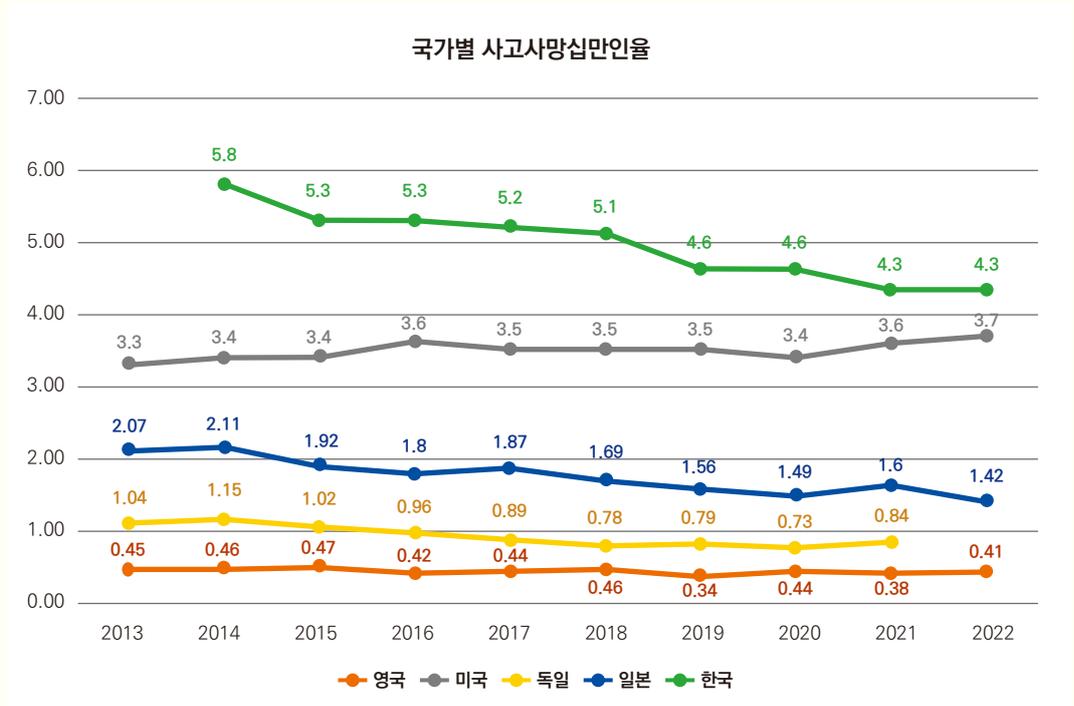
• 사망사고 십만인율(2013년 ~ 2022년)



- (출처)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JISHA)

※ 웹사이트: https://www.jisha.or.jp/international/topics/202308_14.html

- 各国情報・国際関係(각국 정보·국제 관계)
 - ↳ 海外トピックス(해외주제)
 - ↳ 労働者100,000人あたりの死亡災害発生率(1984-2022年, 日本) (근로자 100,000명당 사망재해 발생률(1984-2022년, 일본))



※ 국가별 재해통계 산정 기준(재해의 정의, 업종 분류, 교통사고 반영 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본 국가별 비교 차트는 10년간 사고사망십만인율 변동 추이만 참고 바람

[국제] 선진국 산재통계: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십만인율

※ 한국은 사고사망십만인율을 공식 통계로 활용하고 있으나, 본 통계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사고사망십만인율로 변환하여 표기

- 주요 선진국의 최근 10년(2013~2022년)간 사고사망십만인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영국은 평균적으로 0.4를 유지하고 있으며, '19년과 '21년에는 각각 0.34 및 0.38을 기록
 - 그와 반대로, 미국은 2022년에 3.7을 기록하여 2013년의 3.3 대비 0.4%p 증가
 - 코로나 팬데믹 시기(2020~2021년)에 대다수 국가의 사고사망십만인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국가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임
 - 영국은 '20년에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고 미국, 일본, 독일은 '21년에 전년대비 각각 0.2%p, 0.11%p, 0.11%p 증가
- * 독일은 Eurostat 기준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확인되나, 독일재해보험조합(DGUV)에서 발행한 통계자료(DGUV Statistics 2022)를 통해 2022년 수치는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시사점

- 한국의 사고사망십만인율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10년동안 가장 큰 감소폭($\Delta 1.5\text{p}$)을 보이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일시적 상승 없이 감소세를 유지



[싱가포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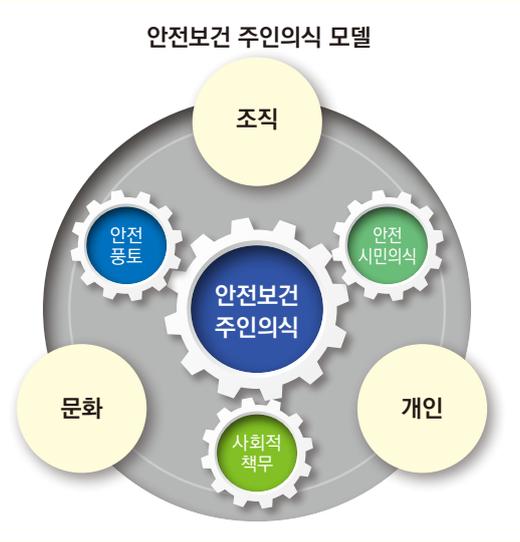
안전보건 주인의식 진단·개선을 위한 온라인 도구 iOwnWSH 개발

배경

-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19년에 2028 사업안전보건 이니셔티브(WSH 2028)를 발표하였고 2022년 9월부터 산업안전강조기간(Heightened Safety Period, HSP)을 시행하면서 건설업 사망자 수를 대폭 감소시킴
 - HSP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2022년 5월 산업안전 책임, 집중, 역량강화(Safety Accountability, Focus and Empowerment, SAFE) 프로그램 실시
 - 그러나 2022년 산재사망률이 10만 명당 1.3명이었던 데 반해, 2023년 상반기에만 근로자 10만 명당 0.8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인력부는 그간 효과적으로 통제되던 산재사망률 감소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 주인의식(WSH Ownership)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도구 iOwnWSH를 개발·보급함(2023.8월)
 - ※ iOwnWSH는 인력부 산하의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난양공과대학교, 위킴위커뮤니케이션정보학교 산하 연구센터 CHESS에서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됨

iOwnWSH 개요

- iOwnWSH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주인의식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설문도구로, 설문 결과에 기반하여 분석보고서가 생성됨
 - 보고서 생성에는 최소 15명의 응답자(경영진 5명, 관리감독자 5명, 근로자 5명)가 필요하며, 설문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 정도로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음
 - 설문은 영어 · 중국어 · 타밀어 · 벵골어로 제공되며, 싱가포르 소재 사업장이 아니라도 무료로 사용 가능
- iOwnWSH는 ‘안전보건 주인의식 모델’을 활용하며 이는 개인, 조직, 문화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문화, 안전 주인의식, 사회적 책무 등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 안전 풍토(safety climate): 근로자들이 안전 방침, 절차 및 관행에 대해 공유하는 인식 수준
 - 안전 시민의식(safety citizenship):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행동양식
 - 사회적 책무(social contract) : 근로자, 관리감독자, 경영진 간 안전에 대한 의사소통 및 묵시적이고 성문화되지 않은 약속



[싱가포르] 안전보건 주인의식 진단·개선을 위한 온라인 도구 iOwnWSH 개발

활용 방법

- 사업주는 iOwnWSH 웹사이트에 가입, 이메일로 근로자들에게 설문 링크 전송
- 경영진,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가 모두 설문에 응답하면 분석보고서 제공
 - 사업주는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심리 수준 미비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안전보건 주인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보고서는 안전보건 조치 및 행동계획 개발 단계를 제안하고 있어, 이를 통해 사업장은 자체적인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여 안전보건 주인의식을 개선할 수 있음

출처

- iOwnWSH (WSH Council)
 - (URL) <https://www.tal.sg/wshc/programmes/iownwsh/overview>
- Workplace death rate holds steady, but firms could be becoming complacent again: Zaqy (The Straits Times, 2023.08.11.)
 - (URL)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workplace-death-rate-holds-steady-but-there-are-concerns-firms-becoming-complacent-again-zaqy>

[참고] iOwnWSH 설문문항

1. 경영진은 안전 위험요인에 대해 알려지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
2. 경영진은 안전 위험요인을 빠르게 바로잡는다(비용이 들더라도).
3. 경영진은 사람을 승진시킬 때 그 사람의 안전 수행을 고려한다.
4. 경영진은 안전 향상에 대한 근로자의 아이디어를 주의 깊게 듣는다.
5. 경영진은 안전 요원이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6. 나는 작업 활동과 관련하여 안전 제안을 한다.
7. 나는 안전 문제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다.
9. 나는 회의 중에 안전 문제를 제기한다.
10. 나는 새로운 근로자에게 안전 절차를 가르치는 데 도움을 준다.
11.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12. 나는 동료들이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활동에 참여한다.
13. 나는 동료들이 안전한 작업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14. 우리 회사는 다양한 역할을 시도함으로써 직원들의 성장을 장려한다.
15.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직업 안정성을 제공한다.
16.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안전보건을 잘 보살핀다.
17. 직원들은 회사에서 그들의 업무 책임을 다 할 것으로 여겨진다.
18. 우리 직원들은 자주 안전 지시 사항을 따른다.
19. 우리 직원들은 종종 작업에 전념한다.

[싱가포르] 안전보건 주인의식 진단·개선을 위한 온라인 도구 iOwnWSH 개발

20. 우리 직원들은 동료들에 의해 쉽게 산만해지지 않는다.
21. 나는 직원들의 안전 활동 참여가 작업 사고율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믿는다.
22. 나는 직원들의 교육이 안전한 작업장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믿는다.
23. 나는 내부 소통이 안전 정책에 대해 배우는 데 중요하다고 믿는다.
24. 나는 작업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25. 나는 우리 직원들이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경영진에게 완전히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고 느낀다.
26. 나는 우리 직원들이 제안을 하는 것이 비판으로 간주되어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27. 나는 우리 직원들이 민감한 업무 문제에 대해 경영진과 논의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낀다.
28. 나는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하면 경영진에게 숨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한다고 느낀다.
29. 우리 회사의 안전 절차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30. 경영진은 항상 안전한 작업 절차를 시행한다.
31. 안전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32. 우리 회사의 안전 절차는 안전한 작업장을 보장하는 데 유용하다.
33. 우리 경영진은 우리와 건강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34. 우리 경영진은 우리와 작업장 건강 증진과 관련된 목표 달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35. 우리 경영진은 건강 증진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 나의 경험을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36. 우리 경영진은 우리 부서에서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37. 우리 경영진은 건강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한다.
38. 우리 경영진은 건강 문제에 관한 결정에 나를 포함한다.
39. 우리 경영진은 나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진다.
40. 경영진은 직원들의 업무 문제를 이해한다.
41. 경영진은 직원들의 잠재력을 인식한다.
42. 경영진과 직원 간의 관계는 매우 좋다.
43. 직원들은 회사와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44. 우리 회사는 좋은 업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45. 우리 회사는 업무 분위기가 좋다.
46. 우리 팀은 안전 개선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도록 장려한다.
47. 우리 팀은 안전 문제에 대한 생각을 거부감 없이 공개적으로 공유한다.
48. 우리 팀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장려한다.

2

정신건강 예방에 관한 분석 및 조사

ILO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 방안

유럽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

일본

수면 부족에 따른 피로누적과
우울 · 불안 증상 악화간의 관계

[ILO]

1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

배경

- 국제노동기구(ILO)는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협약(제190호) 및 권고(제206호)가 2021년 6월 채택된 이후 산업안전보건(OSH) 프레임워크를 통해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V&H)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2024.1월)
 - 보고서는 V&H 문제를 OSH 프레임워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ILO 회원국과 사회적 파트너에게 V&H 없는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주요 전략이 예방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성됨

ILO 협약 제190조의 V&H 관련 조치 권고

- ILO 협약 제190조는 V&H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제7항을 통해 각 회원국이 V&H를 정의하고 금지하기 위한 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함
 - 관련법 및 제도가 V&H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최적으로 설계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예방을 위한 법률, 정책, 점검, 교육, 감시 및 제재 등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장
 - 특히, V&H 예방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폭력대응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특히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장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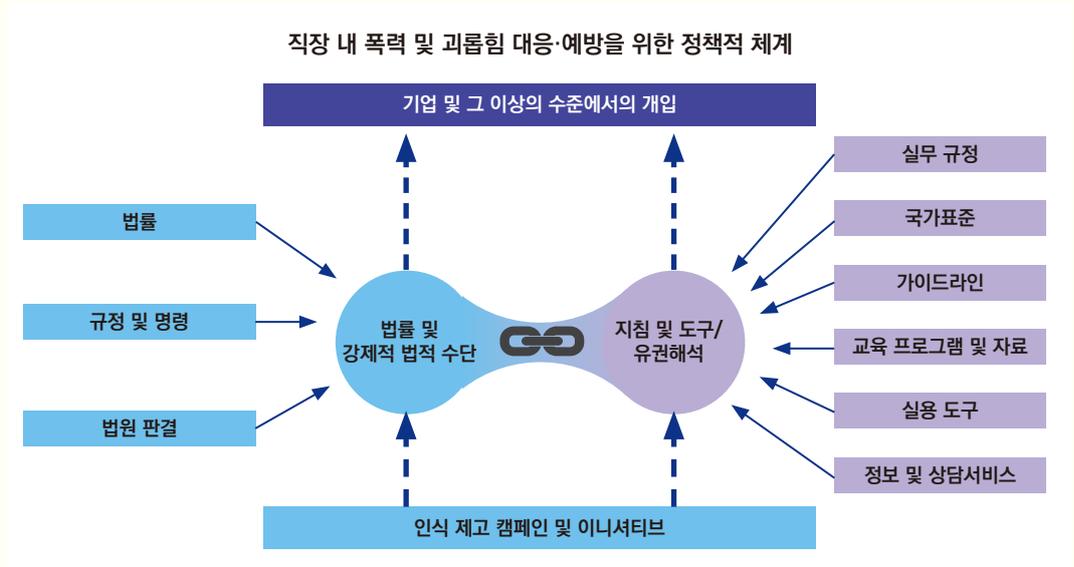
V&H 예방을 위한 법·제도

- 동 보고서의 분석대상 25개국¹⁾은 총 221개의 규정을 토대로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노동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내에 포함
 - 검토대상 25개국 중 12개국에서는 자국법에 직장 내 존엄성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존엄성에 대한 권리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 직장 내 존엄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은 근무 환경의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개발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별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념으로도 사용
- V&H의 법정 규정을 실천으로 이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지침, 교육, 전문지원의 수요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법적 수단 및 운영 지침에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다양한 교육, 실용도구, 포괄적인 안내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는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대응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각 국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1) 25개국은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캐나다(뉴파운들랜드주 및 래브라도주), 덴마크, 엘살바도르, 조지아, 독일,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모잠비크, 노르웨이,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위스, 튀지니, 튀르키예,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알파벳순)

[ILO]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

- 미국 뉴욕시는 근로자 15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하여 이에 맞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United States, Local Law 96, 2018, sect.1.)
-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객의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 실시(Japan, MHLW 2022)
- 스위스는 직장 내 성희롱 교육 키트를 제작하여 배포(Switzerland, SKG 2020)



V&H 대응을 위한 미래과제

- **산업안전보건법규를 통한 예방** :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제고하여 사회적 대화, 모범 사례 공유, 폭력 및 괴롭힘 없는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이행 촉진
- **포괄적인 지침 및 도구 개발** : 국가차원에서 모든 유형의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을 포괄하는 지침과 도구를 개발하여 대기업에 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재정적, 인적 자원이 적은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춘 실질적인 자원 제공
- **다양한 법률체계의 상호보완을 통한 정책방향 통합** :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적 측면을 다루고, 사후 처리 및 구제는 형사법, 보상법의 초점이 되므로 다양한 법률체계의 상호연관성을 정비하고, 법률 문서와 여러 주체들이 제공하는 지침 및 도구의 정보 플랫폼을 중앙 집중화
- **폭력 및 괴롭힘 관련 사회적 대화 강화** : 단체협약을 통해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을 사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매커니즘과 절차 수립에 합의
- **향후 연구 가능 분야** :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해결 모범 사례 및 노사정 협력 매커니즘 연구, 업무환경 변수가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연구, 근무환경 요인의 변화를 통한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유병률 감소 연구 등

출처

- Preventing and addressing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throug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easures (ILO, 2024.01.15.)
- (URL) https://www.ilo.org/global/publications/books/WCMS_908897/lang--en/index.htm

[유럽]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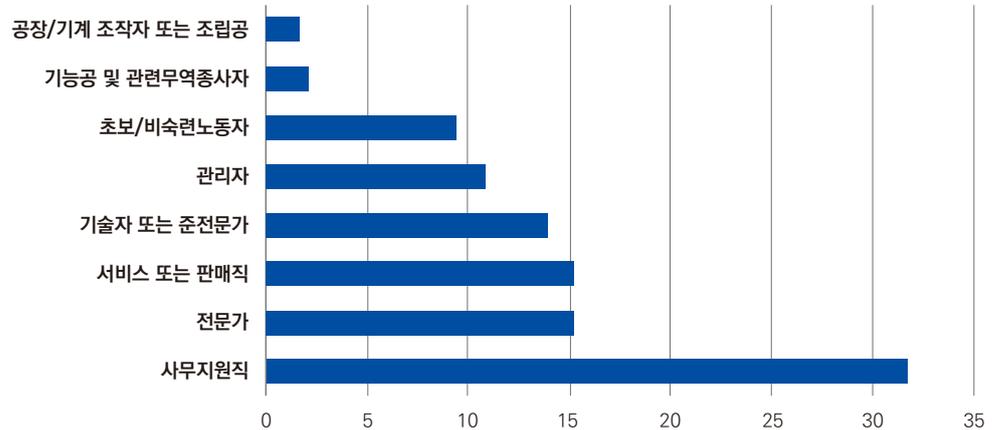
연결되지 않을 권리 (Right to disconnect)

개요

- 유럽연합(EU)은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 일-생활 균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으나, 유럽재단(Eurofound)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근로자들이 디지털 도구를 통해 장시간 근무하고 있고 직무스트레스 등 건강문제를 겪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근무 및 유연한 근무방식이 만연해지고 모바일 도구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에 '항상 연결된' 문화가 근로자 건강 및 웰빙 측면에 위협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됨
- Eurofound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 국가를 선정하여 근로자 및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업장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이하 "연결차단권")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분석하였음
 - 본 조사는 근로시간 외 연락 금지 방침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비교 분석하였고 명시된 근로시간 외 업무상 연락을 해본 경험, 초과근무 시간과 그 사유, 응답자의 일-생활 균형, 건강 및 웰빙,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를 평가함

설문응답자의 직업군 분포

(단위 : %)



정책적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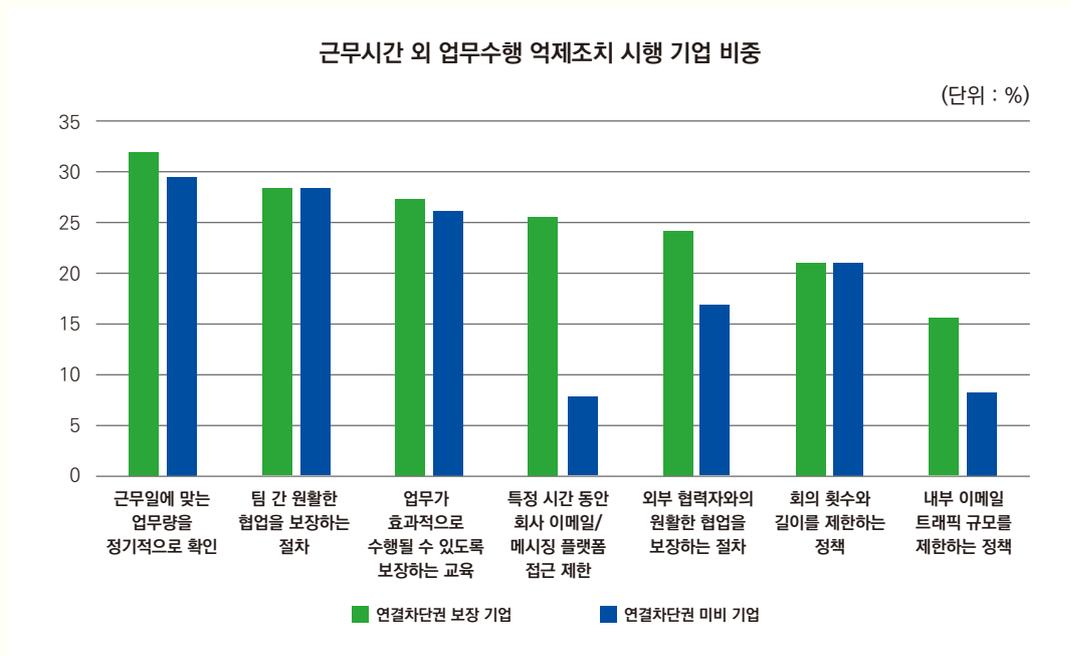
- EU의 연결차단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은 부재하나, 2023년 상반기 기준 근로시간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3/88/EC) 등 EU 지침 다수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연결차단권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을 제안한 결의안(2019/2181(INL))을 제출하였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

[유럽]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 유럽의 산업별 이해관계자들이 원격근무 및 연결차단권에 대한 프레임워크 수립 관련 협상을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10월 최종안 합의에 돌입하였으나 사업주 단체의 반대에 따라 협상이 결렬됨(2023.11.)

주요 분석내용

- **(내부방침화)**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45%는 자신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연결차단권을 방침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80%는 동 방침이 자신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사실상 동 권리의 이행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 사업장은 동 응답인원 중 절반에 불과함
- **(조치의 실행)** 사업장의 연결차단권 조치는 일반적으로 휴가기간 중 수신한 이메일의 자동삭제 및 특정 시간동안 업무 메일 전송방지 조치가 있음
 - 교육 및 인식 제고 등 다소 가벼운 조치를 사업주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었으나, 근로자는 도입이 가장 미흡한 조치라고 응답함



- **(연결응답)** 응답자 중 80% 이상이 명시된 근로시간 외 업무상 연락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75%의 응답자는 근로시간 외에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67%는 상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응답함
 - 근로시간 외에 연락을 받은 응답자 중 90%는 동 연락에 응답했으며 25%는 근로시간 외라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상 연락에 응답함
 - 근로시간 외에도 응답하는 이유는 '본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82%),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75%), 응답하도록 기대되기 때문(75%), 응답하지 않을 시 부정적인 영향 발생에 대한 두려움(61%), 업무역량 발전에 대한 기대(50%)' 순
 - 관리감독자, 동료 또는 고객이 근로시간 외에 연락하여 수행하게 되는 초과근무의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초과근무 유형임

[유럽]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 연결차단 방침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70% 이상이 이를 '매우 긍정적' 또는 '다소 긍정적'으로 판단했으며, 26%는 동 방침의 적용에 따른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

시사점

- '항상 연결된' 문화와 초과 근무시간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제공받지 못하면 일과 생활의 균형, 건강 및 웰빙, 직장 만족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법적 기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함
- 설문결과에 따르면 연결차단권 방침이 시행된 사업장의 경우 일과 생활의 균형, 건강 및 웰빙, 직장 만족도에 긍정적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
- 다만 사업장에서 연결차단권을 도입·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문화적 변화를 도모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동 정책은 인식 제고, 교육 등 효과적인 조치와 함께 시행되어야 함
- 또한 근로시간 외에 연락을 해야하는 사유(높은 업무량, 교육 부족,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 등)에 대한 평가 및 조치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강화해 나가야함

출처

- Right to disconnect: Implementation and impact at company level (Eurofound, 2023.11.30.)
- (URL) <https://www.eurofound.europa.eu/en/publications/2023/right-disconnect-implementation-and-impact-company-level>



[일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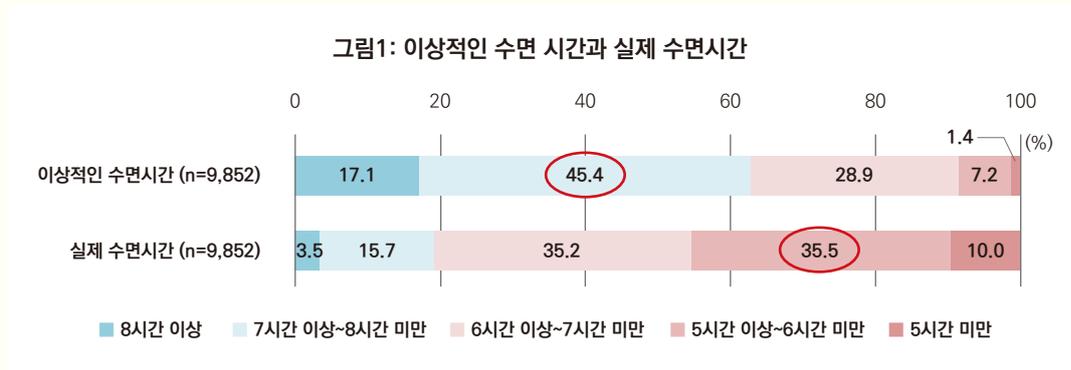
수면 부족에 따른 피로누적과 우울·불안 증상 악화간의 관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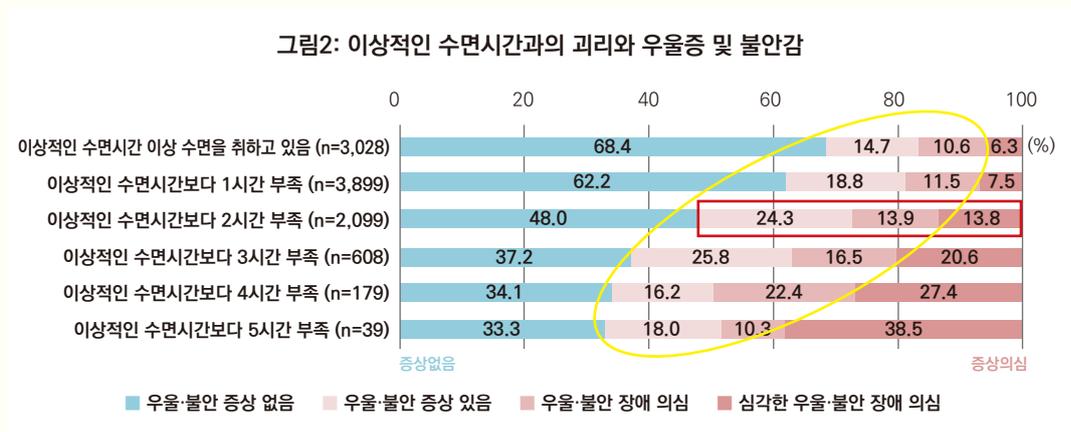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과로사 실태를 분석한 ‘2023년판 과로사 등 방지대책 백서’(이하 본 백서)를 발표함
 - 백서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이상적인 수면시간보다 적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을 의심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내용

-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우울 성향 비율이 높고 행복도가 낮은 사람이 많음
 - (수면시간) 이상적인 수면시간으로 ‘7~8시간’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은 반면, 실제 수면시간은 ‘5~6시간’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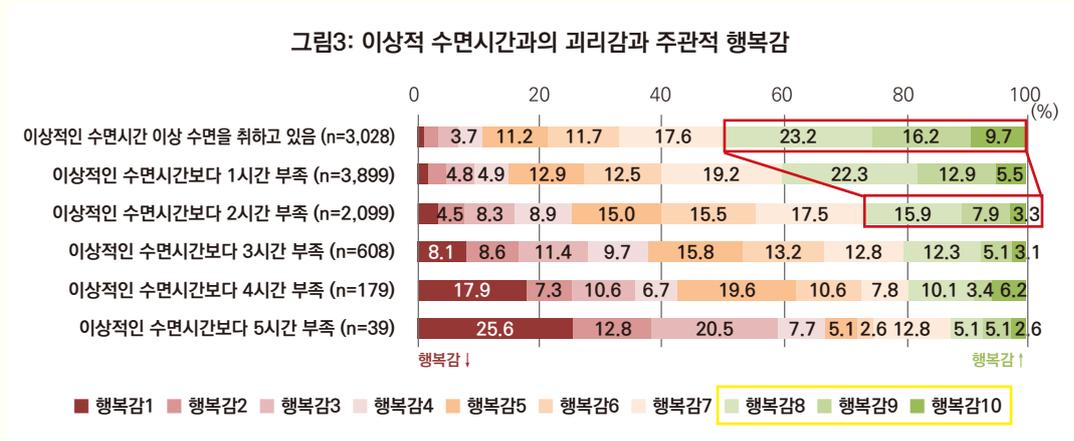


- (우울증상) 실제 수면이 이상적인 수면시간보다 부족할수록 우울증 등이 의심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상보다 2시간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약 50%가 우울증 등이 의심 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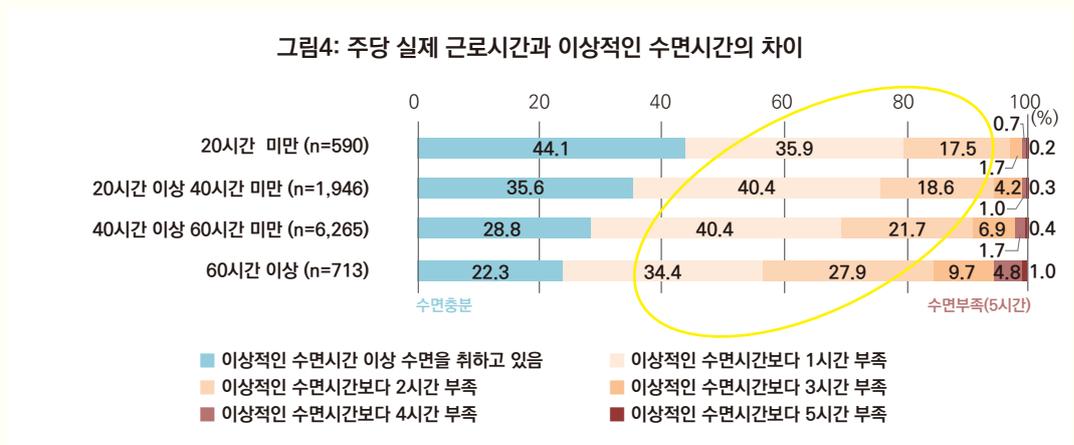


[일본] 수면 부족에 따른 피로누적과 우울·불안 증상 악화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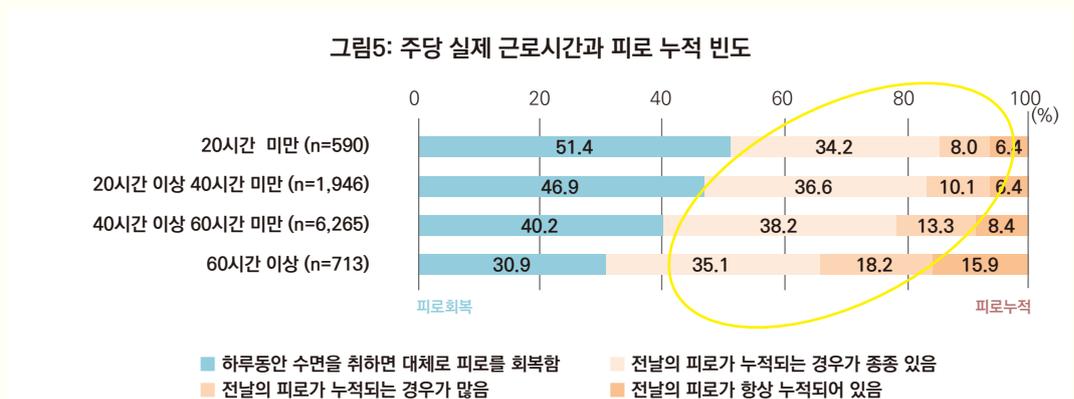
- (행복감) 이상적인 수면 시간보다 2시간 부족할 경우, 행복감이 10점 만점에 8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 정도 낮음



- 근로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을 더 많이 느낌
 -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적인 수면시간과 실제 수면시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 수면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날의 피로를 다음날 아침으로 이월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일본] 수면 부족에 따른 피로누적과 우울·불안 증상 악화간의 관계

방지대책

- **(개인)** 개인별 수면시간을 우선 확보하고, 근로시간 내에 업무를 마무리하며, 가사노동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중요
 - 잠들기전 심신을 이완시키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등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
- **(기업)** 근로시간이 많은 기업에서는 기업측에서 근로자들이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외 근무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바람직

시사점

- 다음날 피로를 이월하지 않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길수록 근로시간을 재검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일본과 더불어 수면 시간이 적은 한국의 근로자들에게도 수면의 재검토와 대책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令和5年版 過労死等防止対策白書 - 睡眠と疲労、うつ傾向及び主観的幸福感などの関係について調査分析 (厚生労働省, 令和5年10月13日)
2023년판 과로사 등 방지대책 백서 - 수면과 피로, 우울 경향 및 주관적 행복감 등과의 관계 조사 분석 (후생노동성, 2023.10.13.)
- (URL) https://www.mhlw.go.jp/stf/newpage_35671.html



3

국제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

미국

포틀랜드 항만,
설계를 통한 산재예방 우수기관 선정

미국

Amazon – MSD 감축노력 및 성과

호주

핵심통제관리 접근법(CCM)을 통한
광업부문 재해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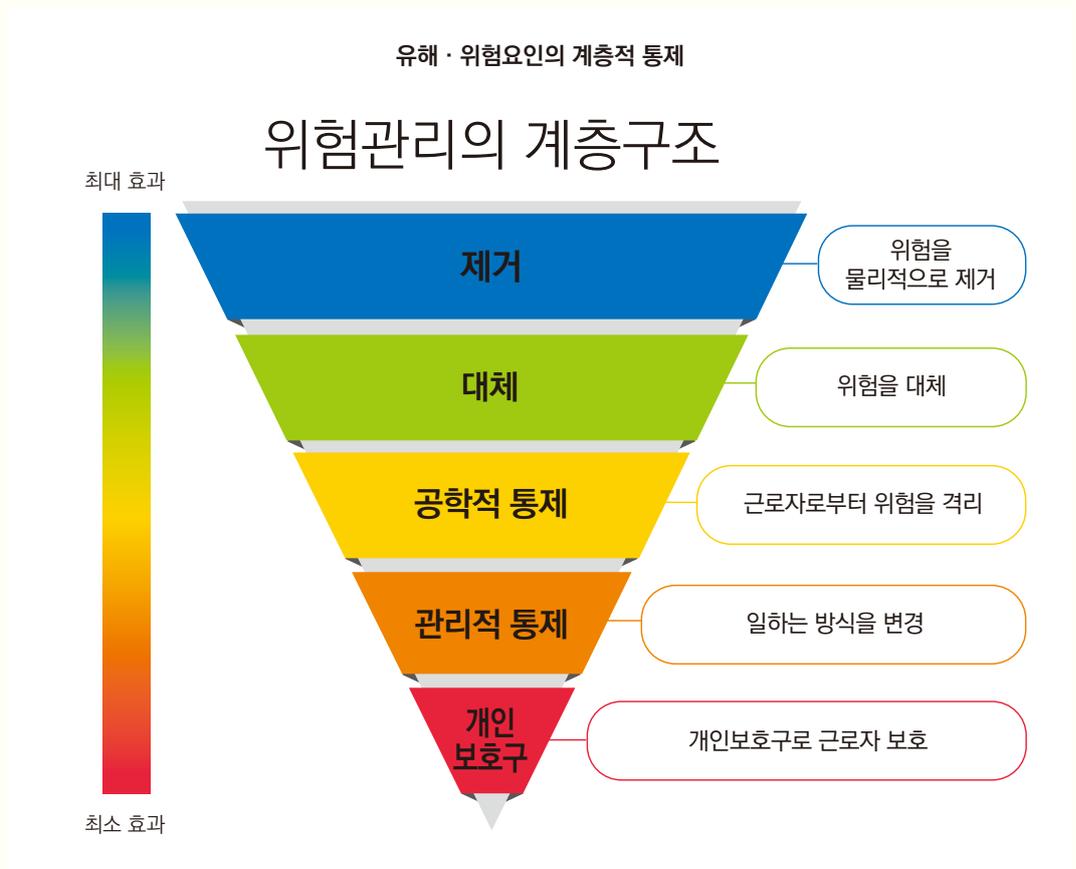
[미국]

1

포틀랜드 항만, 설계를 통한 산재예방 우수기관 선정

설계를 통한 건설업 산재예방

-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업무상 사망사고의 약 20%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BLS, 2024), 2022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092명, 2021~2022년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144,480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함(BLS, 2023)
-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미국 건설업 근로자의 사고 또는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Prevention through Design, 이하 "PtD")을 마련한 바 있음
 - PtD는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유해·위험요인의 계층적 통제」의 최상위 계층에서부터 산재예방조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설계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수단임



※ 그림 출처: NIOSH(<https://www.cdc.gov/niosh/topics/hierarchy/default.html>)

[미국] 포틀랜드 항만, 설계를 통한 산재예방 우수기관 선정

포틀랜드 항만의 설계를 통한 예방사례

- 포틀랜드 항만은 3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주차설비 건설 프로젝트에서 시설의 전주기 동안 내재된 위험요인 감축을 위해 PtD 방식을 적용하였고, 프로젝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NIOSH에서 개최한 제3회 PtD Award에서 수상함
 - 계약 추진 시 PtD 방식 적용을 계약 요건에 포함
 - 표준 이상의 방호조치 방안을 적용한 산재예방 설계 요구
 - 앵커포인트 및 파라펫 벽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고 고정사다리 대신 조립식 계단을 설치하거나 일반유리가 아닌 강화유리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제거
 - 향후 시설 유지보수 작업시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설계 반영
- 특히 9 에이커(4,045㎡) 면적의 지붕을 설치하고 채광판 또한 다수 설치되어 있어 해당 설비의 추락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었음
 - 지상에서 지붕 구조의 대부분을 미리 조립하여 설치
 - 채광판 소재로 국제설계기준에 맞는 비산방지 유리를 사용하여 추락위험 방지

PtD 실천을 위한 도구

- 미국 건설업연구교육센터(CPWR)는 설계를 통한 예방 웹사이트를 통해 건설업 프로젝트 시 조직 구성, 일반적인 건설 위험요인 제거 도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원청은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설계, 구현, 평가 및 환류에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 서식, 실용적인 예시 등 도구 패키지를 개발하여 제공
- (<https://www.cpw.com/research/prevention-through-design-resources>)

| 주거용 건물 건축 시 PtD 체크리스트(예시)

구분	설계상의 위험	PtD 제어방안	설계자	엔지니어
프레이밍, 도색, 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다리 사용에 따른 추락 위험 • 사다리 사용을 최소화하여 추락위험 감소 	높은 곳의 창문 주변 장식을 제거하거나 천장 등 마감작업에 사다리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v	SE
		내부에서 사다리 없이 상부에 접근 가능하거나 지붕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설계	v	SE
		고소작업 구간은 바닥이 평탄한 곳에 위치시켜 안정적인 표면 제공	v	SE
		사다리 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도록 설계	v	SE
		사다리 활용을 위해 건물외부 바닥평탄화 작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일정 계획	-	PE, SE

[미국] 포틀랜드 항만, 설계를 통한 산재예방 우수기관 선정

구분	설계상의 위험	PtD 제어방안	설계자	엔지니어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작업 시 추락위험 경사진 지붕은 도구 및 자재가 추락할 시 타격사고 위험 	설계상 가드레일 시스템 위치 및 종류 명시	v	PE
		추락방지 시스템 장착을 위한 앵커 설계	v	SE
		지붕작업 근로자에게 추락보호구 제공 및 지붕 설계에 파라펫 추가	v	PE, SE
		근로자 작업 안정성 향상을 위한 경사가 완만한 지붕 설계	v	SE
		지붕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마찰력 높은 소재 사용(금속 또는 타일지붕 대신 아스팔트 싱글)	v	PE
		지붕에서 안전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붕요소(환기구, 천창, 배수구 등) 위치 설계	v	SE
		지붕 설치 및 향후 지붕 유지보수 시 자재를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도록 지붕에 평탄한부분 설계	v	SE
		지붕작업 일정에서 장마철을 배제	-	PE
		드론 및 기타 원격 시각화 장치를 활용하여 지붕 검사 수행	-	ME, SE

이하 전체 내용은 CPWR 홈페이지 참조

※ 엔지니어 코드: CE(토목기술자), ME(기계기술자), SE(구조공학자), PE(프로젝트기술자)

출처

- Prevention Through Design to Address Continuing Construction Workplace Deaths and Injuries (NIOSH, 2024. 2. 5.)
 - (URL) <https://blogs.cdc.gov/niosh-science-blog/2024/02/05/ptd-construction-2>
- Prevention through Design Resources (CPWR)
 - (URL) <https://www.cpwr.com/research/prevention-through-design-resources>

[미국]

2

Amazon, 근골격계질환(MSD)* 감축노력 및 성과

* MSD: Musculoskeletal Disorder

배경

- Amazon은 현재 6개 대륙에 걸쳐 11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있으며 9,000명 이상의 안전전문가와 전 세계 모든 근로자들의 힘을 합쳐 의미 있는 발전을 계속하고 있음
- Amazon은 지난 몇 년간 안전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해왔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계속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줌

주요
예방활동

- 근골격계질환(MSD) 감축을 위해 인체공학적 환경 개선에 상당한 노력과 자원 투자
 - 주문처리센터(fulfillment center)에 컴퓨터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인체공학적인 파워 존(어깨와 허벅지 중간)에서 제품을 고르고 보관하도록 안내
 - ⇒ 허리에 가해지는 누적 하중은 평균 5%, 어깨에 가해지는 누적 하중은 평균 7% 개선
 - 일부 센터에 높이 조절형 워크스테이션 도입 및 인체공학적으로 재설계된 포장스테이션 배치
 - 토트(제품이동용 플라스틱 통)를 인체공학적으로 편리하게 다룰 수 있는 자동조절카트 도입
- 안전 개선에 대한 투자
 - 2019년부터 안전 이니셔티브, 기술 및 프로그램에 10억 달러(약 1조 3,500억원) 이상 투자
 - ▶ 중량물 또는 카트 운반에 도움을 주는 최초의 자율 이동식 로봇 프로테우스(Proteus)
 - ▶ 하나의 패키지를 빠르게 선택하고 라벨을 판독 및 분류하는 로봇암 카디널(Cardinal)

프로테우스(Proteus)



카디널(Card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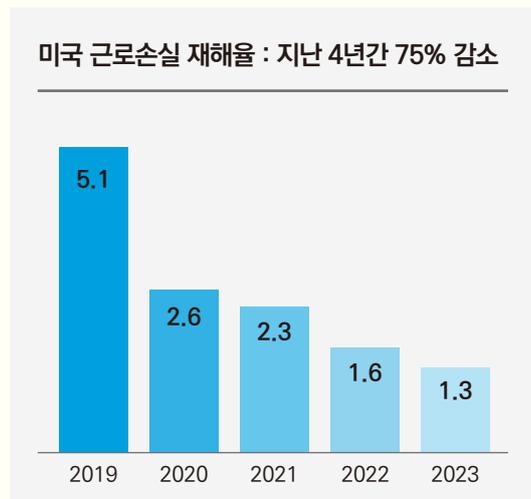
- 2024년에는 인체공학 개선, 트럭 및 도로 안전 개선 등에 총 7억 5천만 달러(약 1조 1천억원) 이상 투자 계획

[미국] Amazon, 근골격계질환(MSD) 감축노력 및 성과

-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
 - 과속, 주의 산만, 안전벨트 미착용 또는 도로 표지판 미준수 등 불안전 행동을 모니터링하여 분석하는 제3자(Third Party) 기술 제공
 - ⇒ 배송서비스 파트너 차량에 해당 기술 도입 후 운전자의 충돌 사고율은 40% 가까이 감소, 2022년 ~ 2023년 미국 내 안전하지 않은 운전 행동 62% 감소

주요 성과

- 전세계적인 안전 성과
 - 기록 재해율(Recordable Incident Rate, RIR) : 지난 4년간 30%, 전년 대비 8% 개선
 - 근로손실 재해율(Lost Time Incident Rate, LTIR) : 지난 4년간 60%, 전년 대비 16% 개선



- 미국내에서의 안전 성과
 - 〈일반 참고 및 보관업〉
 - 지난 4년간 RIR은 24% 개선, 2023년 비율은 6.5로 BLS 평균인 6.8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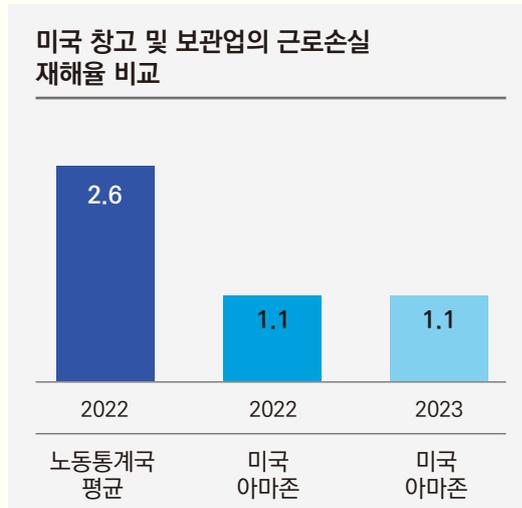
[미국] Amazon, 근골격계질환(MSD) 감축노력 및 성과

- 지난 4년간 LTIR은 77% 개선, 2023년 비율은 1.1로 BLS 평균인 2.6보다 낮음

<택배 및 특급 배송 서비스업>

- 지난 4년간 RIR은 41% 개선, 2023년 비율은 6.3으로 BLS 평균인 11.5보다 낮음

- 지난 4년간 LTIR은 66% 개선, 2023년 비율은 2.4로 BLS 평균인 4.7보다 낮음



※ 미국에서는 일반 참고 및 보관업과 택배 및 특급 배송 서비스업 두 가지 산업으로 구분하여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에 운영 데이터 보고를 보고함

※ 각 산업별 평균은 사업주 규모에 따라 미국노동통계국(BLS)에서 업종을 분류하며, 평균은 매년 11월에 발표되므로 2023년 11월에 발표된 2022년 평균이 가장 최근의 평균

출처

- Amazon's safety performance continues to improve year over year (2024.03.08.)
- (URL) <https://www.aboutamazon.com/news/operations/how-amazon-deploys-robots-in-its-operations-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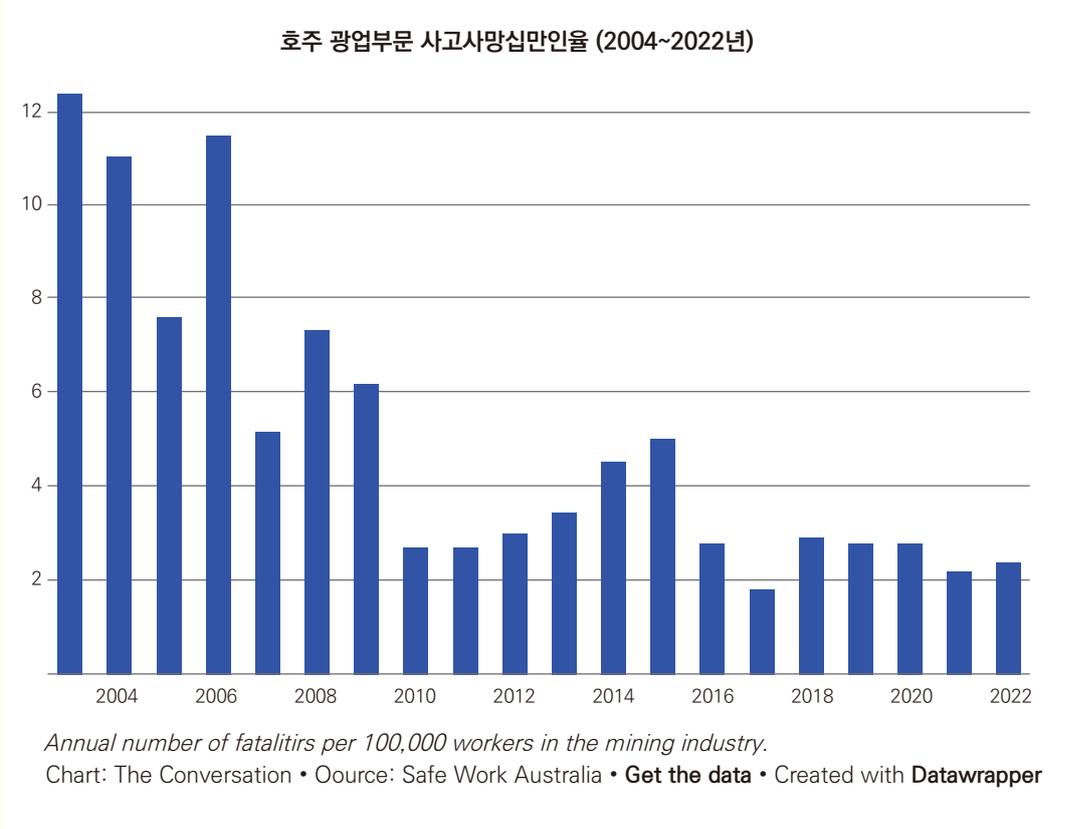
[호주]

3

광업부문 재해예방 접근 사례

호주 광업부문 사망자 수 감소 노력

- 호주는 1994년 8월 퀸즐랜드 주 모우라 2호 탄광에서 폭발사고로 11명의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호주 전역의 광산 안전에 대한 접근방식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여 안전성과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옴
 - 모우라 2호 사건 이후 광업 부문은 위험 관리체계, 역량강화 교육을 도입하여 사망자수를 감소해 왔으며, 사망자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노력 지속



사고사망 원인의 변화

- 과거 광업 부문의 사고사망은 화재, 폭발, 광산 침수 등 중대한 위험으로 인한 것으로 안전관리는 이러한 위험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근래의 사망사고 원인 중 중대 위험은 20% 미만에 불과함
 - 현재 광업 부문의 사고사망 원인은 부딪힘, 끼임, 추락, 차량 충돌 등 일회성 사건으로 다양화 되어 안전관리의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호주] 광업부문 재해예방 접근 사례

| 광업부문 사고사망 원인별 비중(2011~2020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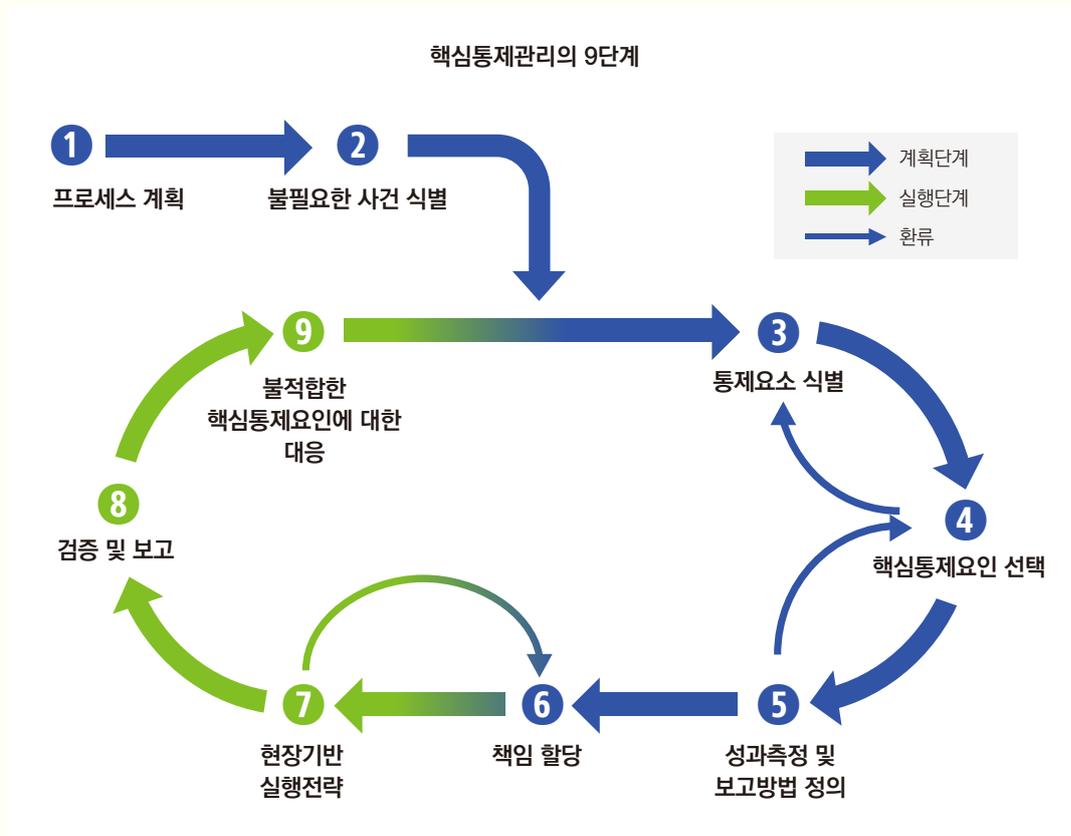
원인	기계적 요인(부딪힘)	차량충돌	자연적 요인	미끄러짐/ 넘어짐/추락	기타
비중	26	17	12	10	21

**인적요인의
영향**

- 광산 자동화 및 원격운영 기술 발달로 광업 근로자의 위험 노출은 줄어들었으나,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생산 압박을 받게되어 정신건강 악화, 피로 증가, 이직률 상승 등 심리사회적 문제가 대두됨
 - 근로자의 정신건강이 나빠질 경우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고 경계심이 약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광업부문
재해예방
접근 사례**

- 핵심 통제관리(Critical Control Management, CCM) : 호주 광산기업 리오틴토社, 뉴몬트社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엄격하게 설계, 실행, 유지·관리하는 데 리소스를 집중



[호주] 광업부문 재해예방 접근 사례

구분	단계	세부내용
계획단계	1	수행내용, 수행주체, 일정 등 프로젝트 범위를 설명
	2	관리가 필요한 재해발생 가능구간 식별
	3	재해발생 가능구간의 통제방안 탐색
	4	재해발생 가능구간의 핵심통제방안 설정
	5	핵심통제의 목적, 성과요건, 성과검증방법 정의
	6	재해발생 가능구간의 핵심통제 및 검증활동 주체 설정
실행단계	7	재해발생 보고계획, 현장에 기반한 실행전략 수립
	8	검증활동 실행 및 과정 보고
	9	핵심통제관리가 부진하거나 사고발생시 부적합한 통제요인 제거·환류

• 정신건강 프로그램(Mental Awareness, Respect and Safety, MARS):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2021년 12월부터 광산 업계의 심각한 정신건강, 직장문화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장만들기**: 심리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관행 장려
- **안전과 존중의 문화 구축**: 안전하고 성평등하며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
- **미래인력교육**: 미래의 광업 인력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위험과 통제를 포함한 안전보건에 대해 교육하고 신규 위험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 수행

출처

- How safe are Australia's mines? New analysis shows reform has been stalled for a decade (The Conversation, 2024.03.18.)
- (URL) <https://theconversation.com/how-safe-are-australias-mines-new-analysis-shows-reform-has-been-stalled-for-a-decade-225789>

4

2024년
국외 산업안전보건 행사

2024년 국외 산업안전보건 행사

행사명	일자 및 장소	행사안내(웹사이트)
The International Occupational Safety & Healthcare (CIOSH) Goods Expo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5.(목)~4.27.(토) 중국(상하이, 푸둥) 	https://www.ciosh.com/en
ICOH 2024 (34th International Congress on Occupational 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8.(일)~5.3.(금) 모로코(마라케시) 	https://www.icoh2024.ma/
TOS+H EXPO 2024 (5th Turkish Occupational Safety+Health Exhib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목)~5.4.(토) 터키(이스탄불) 	https://www.toshexpo.com/
2024 NSC Spring Safety Conference & Expo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5.(수)~5.16.(목) 미국(일리노이주, 로즈먼트) 	https://ssce.nsc.org/SSCE2024/Public/mainhall.aspx
AIHA Connect 2024 (Conference & Expo for OEHS Profession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0.(월)~5.22.(수) 미국(오하이오주, 콜럼버스) 	https://aihaconnect.org/
KIOSH 2024 (12th Kazakhstan Internation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ference and Exhib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9.(수)~5.31.(금) 카자흐스탄(아스타나) 	https://kiosh.kz/en/
IOHA 2024 (13th IOHA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6.9.(일)~6.13.(목) 아일랜드(더블린) 	https://www.ioha.net/13th-ioha-international-scientific-conference/
CIOSH Thailand (Thailand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수)~6.7.(금) 태국(방콕) 	https://www.ciosh.com/en
LEAN ORP Barcelona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7.3.(수)~7.5.(금) 스페인(바르셀로나) 	https://fiorp.org/en/events/lean-barcelona-2024/
ASSP Safety 2024 (Annual Safety Conference + Expo)	<ul style="list-style-type: none"> 8.7(수)~8.9.(금) 미국(콜로라도주, 덴버) 	https://safety.assp.org/
IEA 2024 (22nd Trienni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Ergonomics Association (I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8.25.(일)~8.29.(목) 한국(제주도) 	https://www.iea2024.com/
OS+H Asia 2024 (14th Occupational Safety & Health Exhibition for As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1.(수)~9.13.(금) 싱가포르 	https://www.osha-singapore.com/
2024 NSC Safety Congress & Expo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6.(월)~9.18.(수) 미국(플로리다주, 올란드) 	https://congress.nsc.org/nsc2024/public/enter.aspx

2024년 국외 산업안전보건 행사

행사명	일자 및 장소	행사안내(웹사이트)
WOS 2024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Working on Saf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2.(일)~9.25.(수) • 독일(드레스덴) 	https://wos2024.org/home.html
ORP Congress 2024 (XXIV International ORP congress) * ORP: Occupational Risk Prev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3.(수)~10.25.(금) • 칠레(산티아고) 	https://fiorp.org/
第83回 全国産業安全衛生大会 제83회 전국산업안전위생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3.(수)~11.15.(금) • 일본(히로시마) 	https://www.jisha.or.jp/taikai/2024/index.html
38th APOSHO* Conference * Asia-Pacifi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4.(목)~11.17.(일) • 태국(방콕) 	https://www.aposho2024.com/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하나요?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온라인) PC·모바일로 접속하며, 접속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세요.

1단계

(PC)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http://www.kosha.or.kr>
(모바일) 우측의 QR Code 스캔



2단계

누리집에 표출된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QR Code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진행 되나요?

대진단 실시

- 자가진단표 (10개 항목)
- 온·오프라인 진단



대진단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확인
- 대진단 결과 확인



안전개선 노력

- 정부 지원 신청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 등)
- 자체개선



대진단 상담·지원

-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운영
- 맞춤형 지원



산업안전 대진단,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첫째,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Global Trend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국제 산업안전보건 동향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Tel. 052.7030.745 Fax. 052.7030.326

E-mail. overseas@kosha.or.kr

[www.kosha.or.kr\(Kr\)](http://www.kosha.or.kr(Kr)) | [http://www.kosha.or.kr/english/index.do\(En\)](http://www.kosha.or.kr/english/index.do(En))

* 본 자료 및 출처(URL포함)는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원본자료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웹사이트 기사를 주로 사용하므로 추후 웹사이트 링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국제 산업안전보건 동향은 이메일을 통한 정기구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관련 사항은 국제협력단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